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http://afzine.co.kr

2020
09
507

# Contents


04 기획특집 이곳을 거쳐 가는 이, 최강의 전투조종사가 된다

10 특별기고 공군 위탁교육생과 나
(김수한 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 기자)

12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7화 김규동(金奎東) 시인 편

18 내 옆의 공군인 예비역 대위 박푸름

24 우리 부대는 제2방공유도탄여단

28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한미주 작가(국민조종사 7기)
〈전투기로 말한다!〉 작품 중(자개&옻칠&아크릴)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20년 9월 1일(통권 제507호)
**발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중령 최윤석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박란, 8급 김모아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20080355)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4 시인의 책 여기가 끝이라면

36 명상을 말하다 수용하는 마음

38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하는 군인정신

40 공군인의 편지 꿈 많은 청년의 표정
(제16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상병 이준헌)

41 책읽는 공군 『지능의 사생활』 진정한 가치를 찾게 해주는 진화심리학
(공군사관학교 공병대대 상병 박준성)

42 생각하는 그림 깡

44 기준의 기준 '이런 말' 하지 맙시다

47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글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대위 이요셉(미디어콘텐츠과)
상사 이호준(17비)

# 이곳을 거쳐 가는 이, 최강의 전투조종사가 된다

**'대한민국 탑건스쿨'이라 불리며, 공군 최고의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는 곳 !**
**F-4와 F-5, F-15K, KF-16, FA-50 등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 기종이 모여 있는 곳 !**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기까지, 약 2년 간의 조종교육과정을 어렵사리 통과해도 이후 공군 조종사가 받아야 할 교육은 끝이 없다. 그 수많은 비행 교육과정의 가장 끝에 서 있는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이하 29전대)! 대한민국 최고의 공중전술을 연구·개발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을 만나보았다.

## *"대한민국 탑건스쿨? 조종사 석·박사 과정??"*

**AF 고등전술전기훈련(이하 고전훈련)은 2기 리더 이상 조종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훈련이 진행되나요?**

**191대대 교관 소령 윤재웅** 전투비행단에서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제한이 되는 훈련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기종별 최대 성능 기동을 연구하고 실제로 최대 성능 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종이 모여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격 편대군 비행도 진행합니다. 안전한 비행작전 수행을 위한 RTO(Range Training Officer)[1] 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비행단에서 3~4년 이상 생활한 2기 리더 이상 전투기 조종사가 이 과정에 입과할 수 있습니다.

**AF 고전훈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령 윤재웅**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다. (교관·입과 조종사 할 것 없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목만 축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물을 얻을 수도 있는 훈련)

**대위 심성찬(입과 조종사)** 보물지도 없는 보물찾기

**AF 교관으로서 과정에 입과한 조종사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소령 윤재웅** "신은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을 항상 두려움 뒤에 놓는다." 꼭 비행 훈련이 아니어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도전이고 두려움이기에, 이를 이겨내기 위해 항상 마음에 담아놓는 표현입니다. 제가 속한 191대대의 고전훈련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입과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조종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결국 전투에서의 승리, 생존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임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② ③ ④

①② 역대 고등전술전기훈련 수료자 명패

③ 임무 브리핑 중인 윤재웅 소령

④ 고전훈련 입과조종사 심성찬 대위

1) AIS Pod를 장착하고 임무 중인 비행편대에 대한 훈련 및 안전 조언을 담당하는 훈련통제 장교를 말한다.

**AF 전술무기교관과정이 전투기 조종사 박사과정(?)이라고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2대대 교관 소령 권오현** 전술무기교관과정이 일반 대학처럼 박사과정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종사 교육과정 중 최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입과한 조종사들은 5~6개월 기간 동안 공대공 임무뿐만 아니라 실무장 임무, 다양한 공대지 과목도 함께 훈련합니다. 192대대 교관 조종사들은 수많은 임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본 과정에 입과한 조종사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조종사가 되도록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기본 패치, 콜사인 패치,
매달 29일에 다는 29전대 패치

**AF 고전훈련을 끝내고 전술무기과정에도 입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대위 김경민(입과 조종사)** 전술무기교관과정은 고전훈련과 달리 개인별 연구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여 논단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종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 비행단에서는 비행과 더불어 각종 대기, 개인이 맡은 보직 업무 등 여러 가지를 수행해야 하지만 29전대에서는 오로지 비행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AF 192대대에서는 전술개발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령 권오현** 네. 각종 비행 교범을 재개정하고, 다양한 기종의 전술개발에 대한 토의와 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의 공군 비행단 순회교육을 위한 출장을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또, 동일기종으로 운영하는 비행단과 달리 다양한 기종이 모여서 훈련하기 때문에, 본인이 타고 있는 항공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임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AF 전술무기 교관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령 권오현**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과정

**대위 김경민(입과 조종사)** 아무나 올 수 없는 과정

## *'Aut Viam Inveniam Aut Morientur'*
## *'죽거나 혹은 방법을 찾거나'*

**AF 대규모 공중 훈련 시, 가상적기의 역할을 하는 것도 29전대 베테랑 교관이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임무를 맡고 있나요?**

**가상적기비행대 소령 염창섭**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합을 대비하는 권투선수의 스파링 상대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제 전투 조종사들은 시합이 아니라 실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 시 가상적기의 모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속한 가상적기비행대는 공군 유일의 가상적기 전담 비행대입니다. 임무 시, 적 전술을 연구해서 우리 조종사들의 목적과 수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적기를 흉내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가한 조종사들이 많은 교훈과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임무 후 무장운영평가(Shot Validation)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F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백신같은 존재네요. 훈련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소령 염창섭** 가상적기비행대 마크에는 'Aut Viam Inveniam Aut Morientur'라는 라틴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죽거나 혹은 방법을 찾거나'라는 뜻입니다. 저 역시, 훈련에 임하는 조종사들에게 '죽지 않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F 무기운영교육대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무기운영교육대 소령(진) 서종배** 전자전교육을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개념 및 무기체계의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전자전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비행단에서 파견 온 조종사 이외에 전자전 관련 실무자, 합동성강화를 위해 육해군 국직 부대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정은 기종전환·작전전환 과정을 막 수료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전자전 초급 조종과정', 방공포병, 항공통제, 군수, 정보통신, 정보 등 전자전 관련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전자전 초급 일반·실무자 과정', 전자전 초급과정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전자전 고급 조종과정', 육·해·공·국직부대 전자전 실무자 대상 '합동전자전 과정'이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① 역대 전술무기교관과정 수료자 명패 앞에 선 권오현 소령

② 대규모 공격 편대군 비행

③ 가상적기비행대 염창섭 소령

④ 연합훈련 시에 주고받은 다양한 종류의 패치들

## *"전투기 조종사의 제3의 눈"*

**AF 공중전투훈련장운영대대(이하 공운대대)는 공군에서 유일하게 29전대에만 있는 조직이죠. 'ACMI'체계로 전투훈련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임무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운대대 대대장 중령(진) 남미영** 간단히 말해서 'ACMI(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라는 특수장비를 통해 항공기의 기동상황에 대한 안전조언, 통제 및 과학적인 훈련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AIS-Pod[2]라는 장비를 항공기에 장착하면 고도·속도·방향의 3차원 정보뿐만 아니라, 무장운용결과 등 공중에서 진행되는 모든 전투 훈련 상황을 'ACMI' 체계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조종사는 공중에서 임무 중이고, 이 임무 모습을 지상에서는 체계모니터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훈련 통제조종사(RTO)가 임무통제 및 안전조언을 하여 훈련의 안전성을 높이고 정확한 임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술개발에 활용합니다. 공운대대에서는 공군 전체 ACMI체계의 야전정비와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전대 부대마크

① 공운대대 대대장 남미영 중령(진)

② ACMI체계로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훈련통제조종사

③ 정비대대 무장정비사 안상호 상사

① ② ③

2) 항공기에 탑재하여 GPS 자료를 수신하고, 항공기의 기동기록을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GRS(지상장비)와 다른 항공기로 송수신하며, 이를 RDS에 저장하는 장비

## *"5개 기종 항공기의 무장정비 지원"*

**AF 다양한 기종을 운영하는 만큼, 무장정비사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 비행부대 무장정비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정비대대 무장정비사 상사 안상호** 일선 비행단의 무장정비사의 경우 보통 비행단에서 운영하는 1~2개 기종의 무장 임무에 투입이 되지만 저희는 5개 기종 항공기의 기종별 임무에 맞는 무장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실무장 탄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관조종사 훈련비행, 입과조종사 교육과정 등으로 상당히 많은 실무장 사격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근무 중인 정비사들은 보통 예하 전투비행단에서 일정기간 실무를 익힌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9전대는 1979년 10월 15일 수원기지에서 창설되어, 1981년 4월 7일 지금의 청주기지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안보환경 변화와 무기체계 발전 위에서 공군 전술전기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한발 앞서 고민해온 노력은 오늘의 29전대를 만든 힘입니다. 그동안 이곳을 거쳐 간 모든 이들의 신실한 노력과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AF

부대 창설 20주년 기념으로 세운 기념탑. 횃불은 새로운 전술전기 개발을 위한 선구적 역할을 의미한다.

글 | 김수한 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 기자

# 공군 위탁교육생과 나

**글쓴이**

現 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 기자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졸업(북한학 박사)
고려대 영자신문사 The Granite Tower 편집국장 역임

때는 1995년 3월, 필자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 신입생으로 막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과 선배로부터 우리 입학 동기 중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온 93학번 위탁교육생이 한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차피 같이 학교 생활하게 될 거니까 '형'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잘들 지내라. 학과 행사에도 가급적 참여할 거라고 들었어."

공군 위탁교육생 J씨는 참으로 성실한 태도로 매사에 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입학 후 여러 차례 있었던 각종 입학 축하 행사에서 드디어 그를 만났고, 막걸리잔을 부딪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J씨가 강의에 임하는 태도도 남달랐다. 입학 초기, 동기들 대부분은 대학생으로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일부는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강의를 빼먹기 일쑤였고, 다른 일부는 캠퍼스 잔디밭에 모여앉아 대낮부터 새우깡에 소주를 마셨다. 또 다른 몇몇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문과 함께 소식이 뜸해졌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도 있었다.

첫 학기에 러시아어 알파벳도 모르는 신입생들이 러시아인 교수님이 러시아어 원전으로 진행하는 강의에서 벌였던 아수라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헛웃음이 난다.

교수님이 학생을 호명해 러시아어로 이것저것을 물어보면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다.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한 일부 '열등생'(필자 포함)들은 주위를 돌아보며 도움을 호소하고, 그러다가 손짓과 몸짓을 섞은 바디랭귀지로 한순간을 겨우 모면하고 나면 주변에서 '우와~'하는 찬사와 폭소가 함께 터져 나왔다.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고려대 캠퍼스의 서관(문과대 건물) 강의실에서 '러시아 시(詩)' 강의를 들을 때의 낭만도 잊을 수 없다. 학생들은 '보성전문학교'(고려대 전신) 당시의 고전적 책걸상에 앉아 칠판을 응시하고 있고, 교수님은 칠판에 한가득 러시아 시를 판서한 뒤 러시아 시 특유의 라임(Rhyme)을 강조하며 시를 낭송한다. 그 순간 고딕 양식의 서관 건물 창문 사이로 환한 빛줄기가 내리비춘다. 아, 이렇게 아름답고 운치 있는 장면을 보았던가.

입학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학창시절을 생각하

면 떠오르는 그림 같은 장면이다.

그렇게 폭소와 찬탄과 낭만이 공존했던 그때 그 시절, 강의실에서 J씨는 언제나 차분하고 안정된 자세로 강의를 들었다. 폭소가 터져 나오면 물론 그도 함께 웃었지만, 진지한 자세로 교수님을 응시하는 자세는 우리들 사이에서 그만의 '디폴트'였다. 때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과 수업이 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들 일부가 강의를 마치고 J씨와 막걸리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안도감이 들었다. 그만큼 위탁교육생이 우리 학과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와 1대1 대작을 하며 그런 마음을 전할 기회는 갖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J씨가 우연한 자리에서 필자에게 남긴 '코멘트'가 필자의 영혼을 울리고 말았다. J씨는 어느 자리에선가 필자에게 "너는 참 아까운 사람"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선 그냥 웃고 말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필자를 만나 두세 번 정도 더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유를 물어본 적도 없고, 아직도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그의 그런 기습적인 '코멘트'는 필자에게 오랜 숙제를 남겼다.

그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 그리고 무엇이 왜 아깝다는 것일까.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2020년 봄날의 어느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 청사로 이어지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J씨를 만났다. 그는 지금 공군 대령이 되어 있었다.

"J형, 다음에 또 연락드릴께요. 언제 소주 한 잔 해요."

장장 25년 만의 재회였지만, 만남은 싱겁게 끝났다. 이번에도 그에게 그때 왜 필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아마도 그는 더이상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별다른 의도 없이 건넨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필자가 그의 말을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25년 전 한 공군 위탁교육생이 무심코 던진 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그건 너무 심한 과장일까. AF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글 | **나민애 문학평론가**

#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 제7화 김규동(金奎東) 시인 편

『코메트』 제35호(1958년)
표지 및 시 원본

### 물고기인 항공기(航空機)는

내가 사장(沙場)에 누워 딩굴 때
서남(西南)쪽에서 날아온 항공기(航空機)는
물고기처럼
미끈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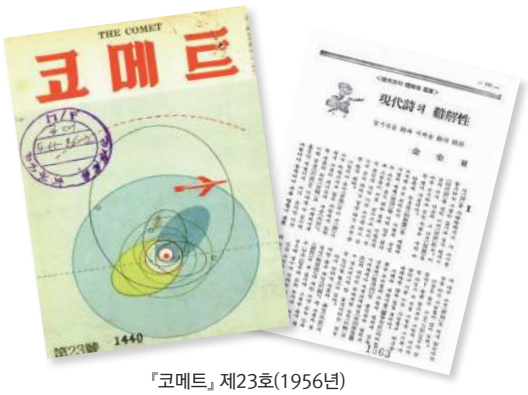
은빛 비눌이
눈부신 기체(機體),

나는 꿈을 꾼다.
하늘을 나는—
향항(香港), 로스앤젤스, 파리, 런던
또는 기억(記憶)에 생생한
서부전선(西部戰線)을—

하늘의 수심(水深)에 깔앉아가는 엔진소리
그것은 머나먼 향수(鄕愁)와도 같이
내 가슴의 벽(壁)에서 멀리 꺼져 간다.

하늘의 푸르름.
휘날리는 기(旗),
한대(台)의 비행기(飛行機)가 남긴 「이메지」는
하얀 신작로(新作路)길처럼 멀리 뻗어 갔다.

**김규동(金奎東) 시인은 1954년부터 1964년까지 공군지에 15편의 글을 발표했다. 공군지 수록작 중에서 시는 총 3편으로서, 제목은 「테레타이프의 가을」(『코메트』 제29호, 1957년), 「물고기인 항공기는」(『코메트』 제35호, 1958년), 「가는 해를 위하여」(『코메트』 제37호, 1959년)이다. 산문 12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론으로 「시와 현실」(『코메트』 제12호, 1954년), 「현대시의 난해성」(『코메트』 제23호, 1956년), 「현대시의 방향」(『코메트』 제25호, 1956년) 등이다. 김규동 시인은 몇 권의 시론집을 발간했던 시론가였으며 그 활동은 특히 1950년대에 빛을 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규동 시인 특유의 시론 중에서 핵심적인 글이 공군지에 발표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공군지에 수록한 산문 중에서 시론 이외의 글은 「직장과 행복」(『코메트』 제8호, 1954년), 「외국영화와 우리의 아이디어」(『코메트』 제43호, 1960년), 「인생과 독서」(『미사일』 제12호, 1962년) 등이다. 이 글들은 대개 수필로서 전쟁 이후의 정신적 폐허를 극복하려는 내용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그리고 영화 「로마의 휴일」에 대한 관심까지 다양한 시인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코메트』 제23호(1956년)
표지와 평론 원본

## 현대시의 난해성

시를 사랑한다거나 시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현대시를 깊이 이해하고, 이것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한 폭의 추상화(抽象畵)를 대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렇게 생긴 사람의 형체란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시를 읽고서도 역시 무슨 뜻인지 저만 아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중략)

시는, 문학은, 예술은, 시대와 함께 또는 역사적 사회현실과 함께 좀 더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표정만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끊일 줄 모르는 주관적 영탄(詠嘆)만을 일삼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아주 달라져가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시인을 내어버린 채 아득히 저 혼자만 달아나 버리고 만다. 보통 사회 사람들도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서 뒤떨어지기를 겁내 하는데 시인이 홀로 현대문명의 소음을 피하여 화조풍월(花鳥風月)의 내 고향산천을 찾아 영구히 하향하고 말았어야 쓰겠는가.

그 어느 시대이고 그러했다. 한 시대의 예술정신이란 것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렬한 대표적인 저항정신인 것이다. 반항하는 정신이 그 저류(底流)에 숨지 않은 예술은 산 예술일 수가 없었다.

시인의 말년 모습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나비와 광장」 중*

이 작품은 김규동 시인(1925-2011)의 대표작 「나비와 광장」(1955)의 일부이다. 특히 대중들에게 그는 이 작품과 1950년대 '후반기 동인'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하게 50년대 시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는 1948년 《예술조선》 신춘문예에서 시 「강」으로 등단한 이후, 60년간 총 10권의 시집과 4권의 시론집, 5권의 산문집을 발간했으며 별세 직전까지도 한국 현대시 문단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던 시인이었다.

김규동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향민이 된 비극적 사정과 북에 남겨 놓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빼놓을 수 없다. 김규동은 1925년 함경북도(咸鏡北道) 종성(鍾城)에서 의사인 부친 김하윤과 모친 김옥길 사이에서 2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다 1940년, 시인의 나이 16세에 함경북도 경성(鏡城)의 경성고보에 입학하는데 때마침 이 학교에는 유명한 모더니스트이자 시인이었던 김기림이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영화 감독 신상옥이며 정치인 김철, 시인 이활, 시인 이용악, 이용악의 동생 이용해 등이 경성고보 시절 김규동의 동창생들이다. 김규동은 어려서부터 작문에 뛰어난 자질을 자랑했는데 경성보고 시절 예술적인 분위기와 좋은 스승 밑에서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의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업을 잇기 위해 의학을 공부하던 김규동은 이후 1948년 스승 김기림을 만나러 서울로 내려오게 된다. 이후 예상치 못했던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시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남한에 친인척 하나 없던 청년의 고단한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인 비극에 함몰되지 않았다. 그의 별세 후에 되돌아보건대 김규동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서든, 한 문인의 삶에서든 존경받을만한 궤적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2001년 통일염원시각전(詩刻展)을 준비하는 모습

그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박인환, 조향, 김경린, 김차영, 이봉래 등과 '후반기 동인'을 결성하여 문단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생활면에서는 중등학교 교사, 한국일보 기자, 출판사 운영, 번역 등의 일을 했다. 시인 스스로는 스승이자 선배 시인인 김기림을 잇는 모더니스트 시인이라고 생각했고 주지적인 작품 세계를 옹호했다. 실제로도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시로서 모더니즘적이고 지성적인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은 공군지 『코메트』에 수록한 시론들에도 드러나 있거니와 특히 「노래하는 시와 생각하는 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0년 3월, 작가회의 사무실에서 (왼쪽부터 이태, 김규동, 김병걸, 남정현)

문학사에서는 김규동 시인이 문명 비판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시를 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비극적 현실을 이지적인 언어로 표현했다. 그런데 김규동 시인에게는 이런 지적인 경향 외에도 뜨겁고 절절한 또 하나의 경향이 발견된다. 김규동 시인은 북쪽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동생, 고향 마을, 친구들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표현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사모곡(思母曲)' 계열의 작품은 그 자체로도 마음을 흔드는데, 거기에 실향민으로서의 안타까움이 보태지니 읽는 족족 통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시인 김규동의 말년은 평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현 (전)대한변호사협회장의 부친이었으며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덕망있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해졌던 모양이다. 「기다림」이라는 작품은 가장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서, 시인은 이때 긴 와병 생활 중이었다.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그리움이 곡진하게 드러나 있다. 시인은 이 시를 쓴 지 몇 달 되지 않은 2011년 9월, 세상과 작별하게 된다.

*기다리겠어요*
*목숨이야 있고 없고 기다리죠*

*하얀 다리에서*
*산굽이 돌아가는 까만 점이*
*안보일 때까지*
*치맛자락 걷어 올려*
*눈물 닦으시던 분*

*그 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넋이야 있고 없고*
*해와 달을 의지해서라도 기다리겠어요*

*날아갑니다*
*휴전선을*
*흰 나비 한 마리*

*「기다림」, 『유심』, 2011년 5·6월호*

나는 시인이다 표지 (2011년)

이러한 김규동 시인이 공군지와 맺은 인연은 매우 특별하다. 특히 『코메트』에 실린 김규동의 시 3편 때문에 공군지가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테레타이프의 가을」의 개작 상황을 들 수 있다. 공군지에 실린 김규동의 시 「테레타이프의 가을」은 이후 시집 『현대의 신화』(1958)에 수록되어, 나중에 『김규동 시전집』(2011)에 수록된다. 전집은 김규동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직접 정리에 참여한 결과물이다. 이 전집에 「테레타이프의 가을」은 「텔레타이프의 가을」로 제목을 약간 고쳤는데, 내용은 여러 부분에서 손보았다. 개작하면서 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김규동 시의 개작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원문이 『코메트』에서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둘째로, 공군지에 실린 김규동의 시 2편은 그의 전집에서도 누락된 작품이다. 미발굴 누락시를, 그것도 두 편이나 확보했다는 사실은 김규동 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놀랄만한 성과이다. 이 점에서 『코메트』는 공군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문학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할만하다. 추후 새로운 전집을 발간할 때 『코메트』의 서지와 함께 공군지에 수록된 작품들을 추가한다면 더 완전한 전집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F

**글쓴이**

1979년 충남 공주 출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아일보』에 〈시가 깃든 삶〉 칼럼을 6년째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1930년대 조선적 이미지즘의 시대』, 『나에게 온 시 너에게 보낸다』, 『책읽고 글쓰기』 등이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대한민국 공군
# 학사사관후보생
# 제146기 모집

# 예비장교후보생
# 20-2차 모집

## 지원자격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대한민국 국적의 남·여**

- 병역법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한 자는 만 29세까지 지원가능(학사사관후보생)

## [학사사관후보생]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입영예정일('21. 2. 22.) 이전 졸업 및 학위 취득예정자 지원 가능

## [예비장교후보생]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3학년 재학생
수학기간 연장학과 및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에 따른
5년 졸업예정자는 2~4학년 재학생,
6년 졸업예정자는 3~5학년 재학생(관련 증빙서류)

※ 예비장교후보생 자격으로 현역병 입영 연기가 불가함에 따라 졸업 후 입영시까지 입영 연기 불가자는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일정

| | |
|---|---|
| **지원서 접수** | 9월 4일 ~ 10월 5일 |
| **1차전형**(필기시험) | 10월 17일 |
|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11월 13일 |
| **2차전형**(신체검사/면접) | 11월 23일 ~ 11월 27일 |
| **2차전형 합격자 발표** | 12월 4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1년 1월 29일 |

위 모집일정은 공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33-09(공군)**
**ARS공군모집안내전화**
검색창에 공군모집 을 검색하세요!

글·사진 | **8급 김모아(미디어콘텐츠과)**

## 제18화 프라임에셋 지사장, 보험·재무 전문가 예비역 대위 박푸름

# LIVE PAGE
## 내 옆의 공군인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 *“공군은 저의 정체성 그 자체”*

20대 청춘을 공군과 함께하고, 현재는 새로운 꿈을 찾은 사나이가 있다. 그를 이끌어 주는 삶의 가치관과 습관들 모두 공군 복무 시절에 익히고 배운 것이라고 말하는 예비역 대위 박푸름. 그는 현재 가정 경제를 튼튼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보험·재무전문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인생목표 중 하나는 ‘공군사관학교 61기 박푸름’의 이름으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는 것. 비록 몸은 군을 떠났지만, 공군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군에 애정을 갖고 ‘공군 대위 출신 박푸름’의 캐릭터로 살아가는 박푸름 예비역 대위의 복무 스토리와 새로운 도전 과정을 생생하게 들어보았다.

## 공군과의 인연

고등학교 시절,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중에 모교 홍보 활동 목적으로 방문한 공군사관학교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멋진 정복과 ‘하늘을 지킨다.’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20대 청춘을 바친다는 점이 저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공군사관학교 입학 전형은 조종자원 90%, 정책자원 10%의 비율로 나눠 선발하였는데,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애초에 정책자원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소위로 임관하기 전, 저는 항공무기정비 특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공군의 주요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직접 지원하는 임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년간의 군 복무 후 2018년도 전역의 길을 선택하였고, 현재는 보험, 재무전문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데이푸름의 보험사용설명서, 울푸TV’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EBS 생방송 라디오 ‘오천만의 재무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군의 날 64주년’ 행사 훈련 대대장 생도 시절

## 이 또한 지나가리라

2013년 소위로 임관한 지 6개월 차 되는 즈음에 저희 중대원 한 명의 무단 탈영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중대원의 행방을 찾느라 단장님부터 지휘관 참모들까지 모두 소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중대원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중대장인 저로서 인원 소재파악은 기본 임무 중 하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내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걱정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그때 중대 반장님 한 분이 저에게 '중대장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몰라요? 이 또한 지나가요. 뭘 이런 거로 그래요.'라고 위로해주셨습니다. 무심하게 툭 내던진 그 말씀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업무수첩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장을 빽빽하게 쓰며 제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당시 전대장님께서 '갓 6개월 차 신임 장교에게 책임을 묻기엔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선처를 베푸셔서 공식처벌이 아닌 대대 권한 자체 처벌이 진행됐습니다.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그 시절을 통해 힘든 위기를 의연하게 이겨내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전역 이후에 겪는 어떠한 힘든 일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무기정비 동기생 (학사 130기 김태훈 예비역 중위) 전역식 (오른쪽)

## 희생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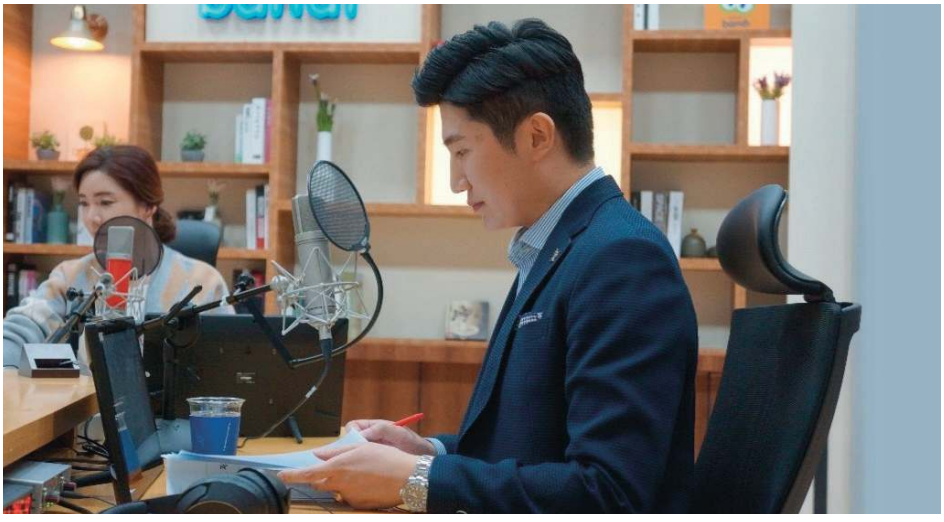
2016년도 제18전투비행단에서 정비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때, 대북갈등이 깊어져 대치 상황이 심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물론 모든 장병이 퇴근 없이 교대로 24시간 비상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였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중대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했기에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더불어 갖은 고생에도 불평불만을 앞세우기보다 각 중대원 모두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과 같은 중대원들과 함께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협동과 희생정신에 대해 되새기는 경험이었습니다.

## 캡틴 박푸름

가장 젊었던 20대의 8할을 공군에서 보냈기에 현재 저의 가치관, 방식, 습관들 모두 공군에서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공군은 저의 정체성 그 자체이자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혹 방송에 출연하여 저도 모르게 '다, 나, 까' 말투를 사용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예리하게 분석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면 작가들은 저에게 '군인 같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도 늘 임관 반지를 끼고 다니며 저는 '캡틴'이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 대위 출신 박푸름' 캐릭터로 여전히 공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공군 대위로 전역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임을 알기에 제 타이틀을 걸고 더욱 사회에 헌신하며 공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 20대 후반, 새로운 도전

사실 생도, 소위, 그리고 중위 시절까지 군 생활을 하며 전역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대위로 진급 후 '전역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하던 중, SNS를 통해 보험·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아울러 가정 경제상태를 분석하고 진단해주는 이 일이 제 적성에 잘 맞겠다고 강하게 느껴졌고, 오랜 고민 끝에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출근 전,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밤낮없이 공부했습니다. 전역 후 바로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AFPK), 한국 재무관리협회(FPSB)에서 시행하는 은퇴 설계 전문가(ARPS) 자격증을 전역 전에 취득하였습니다. 전역 후엔 한 보험회사에 취업해 8개월간 재무·설계업무를 하며, 우리나라에 4000명만 취득한 국제 공인 재무설계사(CFP)의 모듈 1을 합격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듈 2를 준비하며 프라임에셋플래너라는 회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전국의 시청자, 청취자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고 건강하게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EBS 라디오 '오천만의 재무상담소' 방송 모습

##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정보의 싸움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콘텐츠는 하나의 좋은 소통 플랫폼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소통창구를 제대로 갖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방송 때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대본을 작성하고 단어 표현,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콘텐츠를 보고 상담 문의를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피드백도 받곤 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현재 활동 중인 유튜브 채널 '울푸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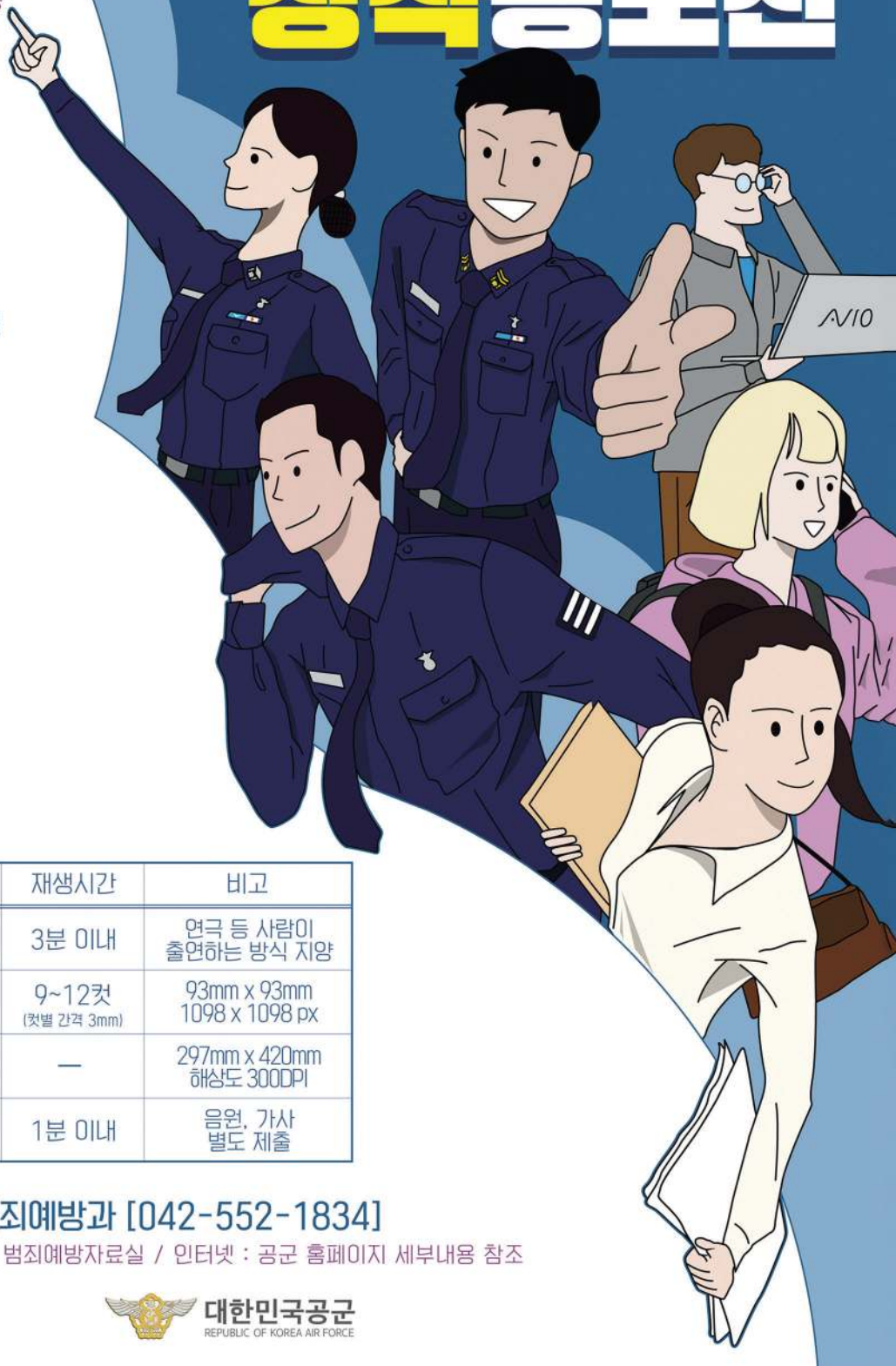
## 앞으로의 도전과제

첫 번째 목표는 대한민국 보험, 재무 관련 유튜버로서 일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사용설명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고 현명하게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이내에 채널명을 '금융사용설명서'로 확대하고, 재무와 금융 분야 채널로 더욱 확장하여 3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 박푸름 석 자가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공군에서 재무, 금융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총장님을 모시고 공군본부에서 강연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령부, 비행단 등 순회하면서 많은 공군 가족들이 저의 강연을 통해 더욱 튼튼한 가정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세 번째 목표는 공군사관학교 61기 박푸름의 이름으로 공군장학재단에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비록 전역했지만, 공군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AF

인터뷰 중인
박푸름 예비역 대위

대한민국 공군 군사경찰단

# 2020년 사고예방 창작공모전



## 기한/대상

- 기한 : '20. 10. 16.(금)까지
- 대상 : 공군 장병 및 군무원 / **일반인**

## 주제/부문

- 주제 : 범죄사고 예방
  (대민/영내폭행,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 부문 : 동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로고송
  ※일반인은 포스터 및 로고송 참여 가능

## 결과발표

***2020년 12월 2주 (예정)***

## 제출방법

- 군내 : 범죄예방관리담당 인트라넷 메일
  Ryudh@af.mil
- 민간 : 범죄예방담당 인터넷 메일
  mpkim0903@naver.com

## 시상내역

- 최우수 : 참모총장상 + 상금
- 우 수 : 참모총장상 + 상금
- 장 려 : 인참부장상 + 상금
- 입 선 : 군사경찰단장상 + 기념품

## 부문별 양식

| 구분 | 크기/용량 | 파일형식 | 재생시간 | 비고 |
|---|---|---|---|---|
| 동영상 | 200MB 이하 | WMV | 3분 이내 | 연극 등 사람이 출연하는 방식 지양 |
| 카드뉴스 | 10MB 이하 | JPG | 9~12컷 (컷별 간격 3mm) | 93mm x 93mm 1098 x 1098 px |
| 포스터 | A3 | JPG | — | 297mm x 420mm 해상도 300DPI |
| 로고송 | 10MB 이하 | MP3 | 1분 이내 | 음원, 가사 별도 제출 |

## 문의 : 군사경찰단 범죄예방과 [042-552-1834]

※ 인트라넷 : 군사경찰단 범죄예방자료실 / 인터넷 : 공군 홈페이지 세부내용 참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글 | 중위 성원제(2여단 공보정훈실)

## 우 리 부 대 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여단!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
One Shot! One Kill!

# 제2방공유도탄여단

중부 권역을 중심으로 적의 공중도발과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최초 결전부대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을 소개한다.

### 부대 마크의 의미

- **독수리 :** 대한민국 공군을 상징
- **유도탄 비과 :** 적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태세를 의미
- **방패 :** 공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
- **별 :** 2여단 및 높은 꿈과 희망을 상징

### 부 대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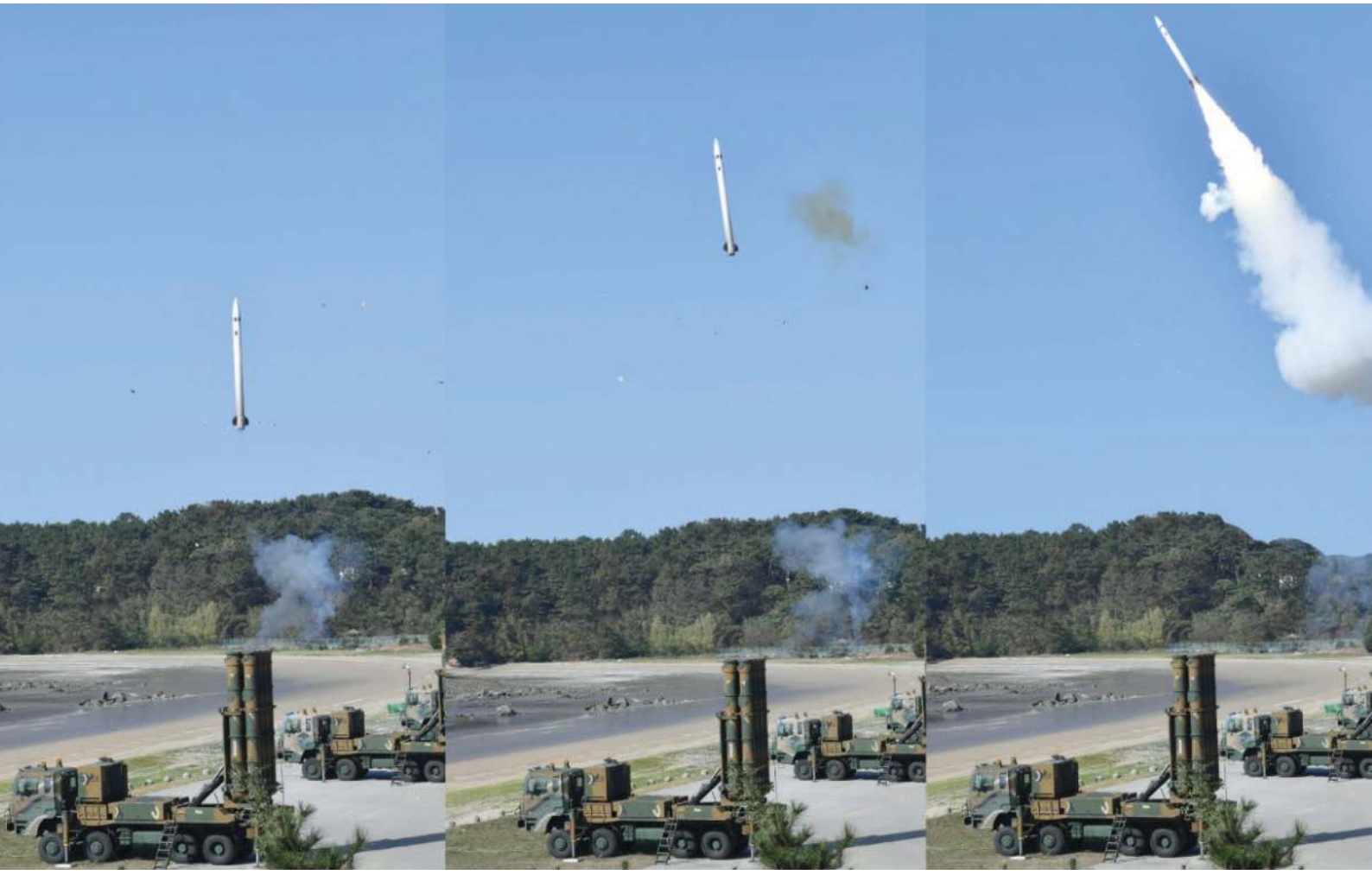
- 1972. 12. 01. 육군 제2방공포병여단 창설
- 1991. 07. 01. 제2방공포병여단 공군 전군
- 1997. 05. 22. 여단본부 천안 성환으로 통합 이전
- 2009. 10. 30. 중원 패트리어트 포/정비대 창설
- 2009. 11. 02. 청주 패트리어트 포대 창설
- 2010. 10. 15. 원주 패트리어트 포대 창설
- 2010. 10. 29. 강릉 패트리어트 포대 창설
- 2014. 01. 01. 제2방공유도탄여단 명칭 변경
- 2015. 09. ~ 국산 지대공미사일 '천궁' 전력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방공망 강화를 위해 경기장 인근으로 전개한 예하 포대

여단본청현판식 2014년

## 명품 방공유도탄여단의 탄생

제2방공유도탄여단의 모체인 제2방공포병여단은 1972년 12월 1일, 주한미군의 호크와 나이키 유도탄을 인수하여 충남 서산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1일 방공작전의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위해 공군으로 전군되었으며, 1997년에는 효율적인 부대 지휘를 위해 여단본부와 작전통제소, 제122방공포병대대를 충남 천안으로 통합 이전했다. 제2방공포병여단은 2014년 1월 1일부로 방공개념의 확장과 운용전력이 최첨단 정밀 유도무기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오늘날 불리는 '방공유도탄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여단은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맞춰 패트리어트와 천궁 등 신형 무기체계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명품 부대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시 천궁 사진

고지대에서 작전 중인 제8983부대

## 가장 높은 곳에서 방공유도탄작전을 펼친다

2여단 예하 부대들은 중부지역 산악, 해안,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 주둔하면서 적의 항공기와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다. 특히 2여단은 2018년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경기장 지역 방공방을 강화 운영하며 국가적인 행사가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발 1,400m에 위치한 2여단 예하 제8979부대처럼 방공유도탄부대 특성상 고지대에 위치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8930부대 천궁 도입기념식

## 첨단 방공유도탄무기체계의 요람

2여단은 최신 방공유도탄무기체계 전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어트의 첫 전력화에 성공했으며, 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천궁도 방공유도탄 여단 중 최초로 전력화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PAC-3)의 훈련 및 교육, 장비 인수 등 체계 통합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방공유도탄부대를 선도하고 있다.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천궁)

## 최고의 방공유도탄부대를 가리는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2여단은 포대들의 실전적인 전술기량을 배양하고 최상의 방공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 매년 참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2여단 예하 부대는 천궁과 패트리어트 등 무기체계의 발사대와 통제소, 레이더 등 전개훈련을 병행하며, 적 항공기 침투를 가정한 표적에 실사격을 실시한다. 이러한 실사격 훈련을 통해 2여단 작전요원들은 '초탄필추'의 사격 기량을 높이고 팀워크와 전문성을 강화한다.

예하부대 전개훈련

## 실전적 훈련 통한 전투 전문가 육성

방공유도탄부대 요원들은 첨단 무기체계를 다루는 만큼 작전과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이에 2여단은 매년 전투태세 훈련과 전개훈련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실제 작전장비나 CBT를 활용하여 실전성을 높였으며, 전시상황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부여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 역량을 갖춘 전투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AF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상사 곽근호 (기상단)

# 제91항공공병전대, 수해복구 대민지원

제91항공공병전대는 8월 4일(화)부터 8월 19일(수)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주시 엄정면, 노은면, 양성면, 소태면 일대에 수해복구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원사 정연길(비서실)**

## 광주기지 대비태세 및 수해 복구지원 현장점검

참모총장은 8월 13일(목) 광주기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부대 인근 지역 수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기증식 주관

참모총장은 8월 11일(화) 순직조종사 유가족에 대한 장학 및 원호사업을 지원하는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기증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안재봉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본인의 저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리」의 인지세 천만원을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증했습니다.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각 부대 공보정훈실**

## 제3훈련비행단

### 사진 동아리 어르신 촬영 봉사활동

제3훈련비행단 사진 동아리 '사진두드림'은 8월 8일(토) 부대 인근 지역에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개인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제5공중기동비행단

### 태풍 후 항공기 정비 점검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8월 11일(화) 제5호 태풍 '장미'가 지나간 후, 부대에서 운용 중인 C-130H/J, CN-235, KC-330의 안전한 항공작전 임무를 재개하기 위한 정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제10전투비행단

### 5만 시간 무사고 비행 안전 시상식

제10전투비행단 8월 7일(금) 필승교육관에서 201 비행대대의 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축하하고, 장병들의 비행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무사고 비행 안전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 제16전투비행단

### 6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제16전투비행단은 8월 13일(목) 6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록은 2003년 5월 14일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 약 17년 3개월에 걸쳐 수립된 것입니다.

## 제18전투비행단

### 부대 인근 초등학교 방역소독 활동

제18전투비행단은 8월 12일(수) 부대 인근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소독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제20전투비행단

### 인근 소음지역 위문품 지원

제20전투비행단은 8월 12일(수) 비행소음 영향 지역인, 충남 보령시 웅천사격장 인근 소황리 등 8개 마을 회관과 독산 어촌계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AF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정신전력원
Defence Agency for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 2020 정신전력강화 연구논문 및 콘텐츠 공모

## 2020.05.01-09.30

### 공모개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전 장병
- 공모기간 '20. 5. 1. (금) - 9. 30. (수) 오후 5시 까지
- 수상작 발표 '20년 11월 중 (개별통보)

### 공모주제

- 연구논문 부문 교육 프로그램 및 발전, 각급 부대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 등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 콘텐츠 부문 군인정신, 애국심 등을 주제로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 응모방법

- E-mail 접수
  - 인터넷(일반) jungsin3560@mnd.go.kr
  - 인트라넷(군) 92-20665@mnd.mil
- 제출자료
  - 연구논문 부문: 참가신청서, 저작물이용동의서, 문헌유사도검사결과, 논문(A4용지 15매 내외)
    * 글자크기 11pt, 한글파일, 상·하 15 좌·우20, 머리말·꼬리말15, 줄간격 160%
  - 콘텐츠 부문: 참가신청서, 저작물이용동의서, 각 분야 별 제출 파일(아래 표 참고)

| 구분 | 분야 | 제출 |
|---|---|---|
| 영상 |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UCC 등 | 30초 이상의 동영상 파일 |
| 스토리텔링 | 만화, 카드뉴스, PPT, 캘리그래피 등 | jpg 또는 jpeg파일과 원본 파일(psd, ai 등) |

* 기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 제출 가능

- 제출서식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공지사항) 또는 원 인트라넷 홈페이지 (콘텐츠 마당 > 정신전력 논문공모전)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접수처 국방정신전력원 콘텐츠개발부 군 975-3561 일반 042-878-3561

### 시상내용

총상금 1,200만원(국방부장관 상장 수여)/ 12명

| 구분 | 연구논문 | 콘텐츠 |
|---|---|---|
| 최우수상 | 1명/ 250만원 | 1명/ 250만원 |
| 우수상 | 2명/ 각100만원 | 2명/ 각100만원 |
| 장려상 | 3명/ 각50만원 | 3명/ 각50만원 |

### 주관부서

국방부 국방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
국방정신전력원 콘텐츠개발부

글 | 손세실리아 시인

##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건넨 인사

이 책은 세계일보 문화면에 「조용호의 나마스떼」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던 인터뷰 모음집이다. 낱낱이던 기사를 한 데 정리해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저자는 "지난 5년 동안 컨베이어벨트 위를 달린 느낌이다"라는 소회를 책 머리에 남겼다. 중견 기자의 어법치곤 다소 거칠고 무시무시하다. 세련되고 정중한 고별사 다 놔두고 대체 어떤 연유로 위태롭기 짝이 없는 컨베이어벨트 운운한 걸까? 문학전문 기자임과 동시에 소설집 수권을 출간한 현역 작가이니 표현의 궁색함이랄 수는 없을 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알고 싶어 서둘러 책장을 넘겼다.

소설가 황석영에서 출발해 셰프 작가 박찬일로 끝나는 100편의 글은 인터뷰라기보다 그것의 형식을 빌려 기술한 작가 100인의 엽편전기(葉片傳記), 즉, 짧은 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껏 어디에도 털어놓은 바 없던 고백이 허다하니 말이다. 그 첫째 요인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상호 간 절대적이고 돈독한 신뢰와 교감이며, 둘째 요인은 소형녹음기와 질문지를 배제한 인터뷰어의 무언중 비무장 선언이지 않을까? 하는 말마다 녹음되고, 식상한 질문으로 일관했다면 이렇듯 진중하고 참신한 인터뷰는 불가능했을 테니 말이다.

먼 길 고속버스로, 비행기로, 때론 KTX로 달려갔고, 때론 전철로 마을버스로 도보로 산책하듯 만나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두어 날 동행하며 나눈 이야기는 시시콜콜 근황으로 말문을 터 내밀한 애환과 고충으로 이어지다가, 인류, 세계, 철학, 사유, 문학, 통일, 사회정치, 교육과 환경 현안 등으로 깊어지고, 확장된다. 가볍게 책장을 넘기다 결국 포스트잇을 챙겼다. 작가의 어록과 책 제목, 대화 중 거론되는 인물 등으로 책갈피는 금방 두툼해졌다. 그중 귀띔해주고픈 몇 마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청하자 중국의 소설가, 위화의 대답.

*"청년이라면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용기를 내면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운명에 순응해야죠."(49쪽)*

범람하는 자기계발서에 대한 문학평론가 김주연의 생각.

*"솔직히 청춘을 위로하는 요즘 자기계발서들 너무 싫습니다. 달콤한 말로 토닥인다고 힘들어하는 청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아프고 절망스럽다면 끝까지 가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차라리 그곳에 답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부딪쳐서 끝까지 가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의 본질입니다."(83쪽)*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로서는 드물게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황현산의 말.

*"한국 사회는 좀 더 합리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험난한 현대사를 통과해온 탓인지 한쪽으로 기울어 시기, 질투, 의심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뿌리 뽑힌 삶의 원형, 그 상실감이 주는 상처도 굉장히 크다."(4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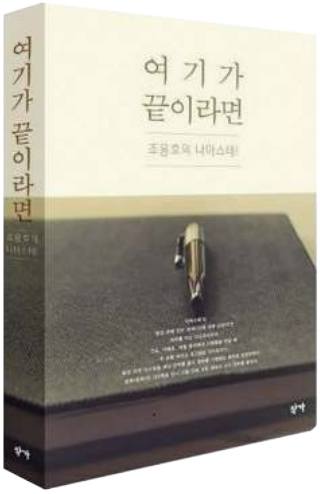
책을 다 읽고 나자 반년 전쯤 내게 고민을 토로하던 청년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꽤 많은 책을 읽었다고 자부했는데 책장을 보니 전공 서적, 자기계발서, 재테크…, 온통 스테디셀러 일색이더군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안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했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에게 맞춤한 책이라는 생각에 얼른 문자를 전송했다.

"『여기가 끝이라면』 읽어봐요. 거기 참여한 작가 100인의 대표작 1권만 읽어도 100권인데, 읽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출발의 모색이 될 수 있고, 인문학의 세포, 신경, 뼈, 근육이 저절로 길러질 테니까. 나마스떼!". 당신 안의 세계(신)에 경배드린다는 뜻을 덧붙일까 하다가 그만뒀다. 모르면 어떤가 싶어서다. 십여 분이 지났을까? 그에게서 답 문자가 도착했다. "괜히 징징거렸다 후회했는데 기억하고 계셨군요. 감동이에요. 방금 동네 서점에 주문 완료했습니다. 조만간 건강한 세포, 짱짱한 뼈, 탄탄한 근육이 돼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나마스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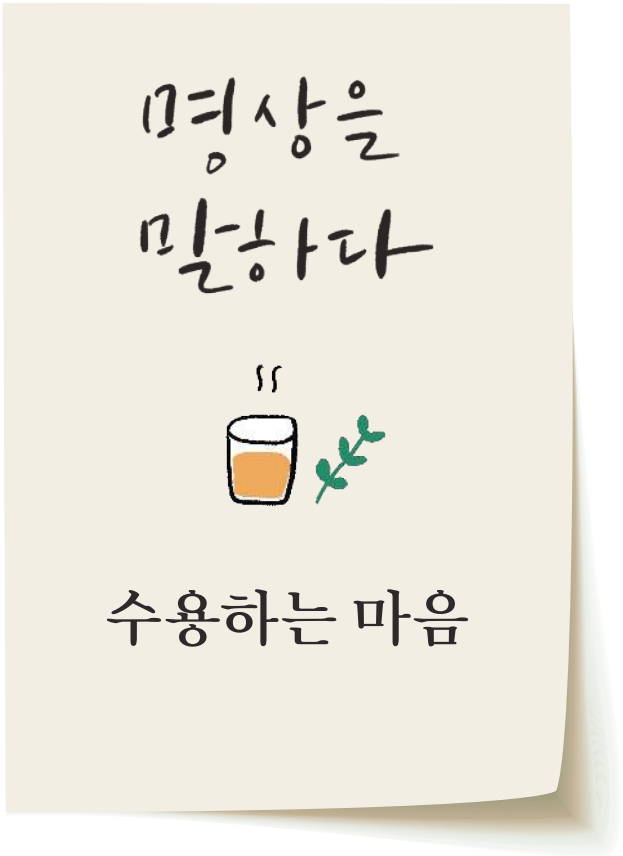
기억장치에 의존해 일체의 과장과 왜곡 없이 작성한 기사가 두툼한 책으로 묶여졌다. 5년여, 격주로 마음의 컨베이어벨트 위를 달린 이의 노고 덕이다. 이 곡진한 인문학의 수혜를 다수가 만끽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AF



**글쓴이**

2001년 《사람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기차를 놓치다』와 『꿈결에 시를 베다』가 있으며,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이 있다. 현재 제주에서 서점카페 '시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글 | **최순용 명상 강사**




지난 2월호부터 여러분과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지 벌써 8개월이 흘러 지난 호까지 7회를 했습니다. 독자들 중에는 기존에 알던 명상과 다르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인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상'이라는 단어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간의 명상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라는 것과 명상을 통해 키워진 건강한 마음이 생활 속으로 퍼져 들어가 생활 전체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명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삶의 건강한 정신적 요소들을 명상을 통해서 키워 나가는 것이 명상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수용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좋은 요소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는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분노심'을 키워갈지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삼을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후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겠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에게 오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 하나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원인과 결과의 이런 성질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에 이르는 원인은 만들지 않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명상에서는 '탐욕심'이라고 합니다.

한편, 원인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이미 일어난 결과는 그 원인에 따라올 뿐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구분하여 원인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미 일어난 결과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지요.

### "원인을 짓는 일에는 최선을, 그에 따른 결과는 수용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애석해 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삼아 더 나은 원인을 지금 이 순간에 지어 나가는 것이 수용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분노심'과 '탐욕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결국 내가 짓는 원인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탐욕심'이고 그 '탐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분노심'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탐욕이 많은 사람이 분노가 많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상에서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의견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좋은 원인을 만들어 가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인들이 말한 '진인사 대천명(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림)'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즉, '수용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적극적'이면서도 '수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용하는 마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명상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용성을 키우는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합니다. 몸과 마음에 긴장된 곳이 있는지 알아차려 보고 긴장된 곳이 있으면 바로 릴랙스합니다.

② 심호흡을 반복하면서 충분히 이완되었다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취합니다. 때로는 몸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③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어도 지금 이 순간의 일들은 자기 일들을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객처럼 흘러 지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④ 내버려 두기가 충분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면, 알아차림을 가만히 마음 안쪽으로 돌려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 걱정, 후회, 계획, 불안, 동요, 안정감 등을 지켜 봅니다. 이것들 역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에게 온 결과들일 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알아 나갑니다.

⑤ 이 상태로 10분 이상 충분히 알아차리고 지속한 후,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서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츠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글 |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 철학, 군인 정신을 말하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하는 군인정신

## 전사는 문명의 수호자여야 한다.

### "상대편의 올리브 나무를 불태우지 말라."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을 벌일 때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다. 첫째, 상대편 도시의 올리브 나무를 자르거나 불태우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 도시를 파괴하거나 물 공급을 끊지 않는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전쟁은 서로 간의 의견 충돌로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은 비록 적(敵)이지만, 갈등이 사라진 후에 상대편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다시 돌아올 터다. 그러니 상대의 살림 밑천인 올리브 나무를 없애서는 안 된다. 주변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내 생활 역시 피곤해지지 않겠는가.

나아가, 전쟁터에 나서지 않는 일반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은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후에 자라나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서로 도와야 하는 까닭이다. 올림픽 기간에는 그리스 안의 모든 나라가 전쟁을 멈추었다.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에도, 그리스의 국가들끼리는 평화의 기초가 되는 관습을 어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보불전쟁 이후 70년 넘게 평화가 이어지던 상황, 사람들은 안온한 생활이 지루한 나머지 전쟁이라는 '모험 판타지(?)'를 꿈꾸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 이후로 서양 문명은 2,500년 넘게 발전해왔지 않던가. 이제 전쟁은 훨씬 신사적이고 품격있게 진행될 터다. 게다가 세계화가 진행되어 유럽의 나라들은 서로에게 깊게 의지하고 있었다. 전쟁은 스포츠 게임처럼 상대를 배려하며 짧고 아름다운 승부로 끝날 듯싶었다.

### "파괴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은 진절머리 나게 잔혹했다. 국제법은 깡그리 무시되었고, 뛰어난 무기들은 대량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군대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서로 안 볼 것처럼 상대편을 학살했고, 나라는 아이들의 가슴에 끝없는 증오를 불어넣었다. 이렇듯 인류는 순식간에 야만의 나락으

로 떨어져 버렸다. 문명은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915년,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G.Freud, 1856~1939)는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 이 물음에 답을 준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식욕, 성욕 같은 본능이 사라질 리는 없다. 공격과 파괴, 죽음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본능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때려 부수고 싶은 생각에 빠진 적은 없는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짓눌러버리고픈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끈거리지는 않는가? 평화 시기에는 이런 욕망을 감히 실천에 옮길 엄두를 못 낸다. 그랬다간 온갖 비난과 처벌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전쟁은 문명이 '파괴본능'에 붙여놓았던 봉인을 풀어 버린다. 전쟁 상황에서는 살인과 폭행을 비롯해 금지되었던 온갖 행동들이 허락된다. 더 많이 죽이고 더 처참하게 파괴할수록 영웅으로 치켜세워지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종교 전쟁을 예로 든다. 신을 위한다는 경건한 이유로 벌어지는 싸움은 되레 잔혹해지기 십상이다. 고상하고 거룩한 명분이 파괴본능에 사로잡힌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까닭이다. 프로이트는 파괴본능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전쟁의 처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충고한다.

### "전사는 문명의 수호자여야 한다."

1931년,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프로이트에게 물었다. "인류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이 물음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본능을 없애기란 불가능하다. 파괴본능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전쟁은 사라질 리 없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의 말을 던진다.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진리를 좇는 지도자들을 열심히 교육한다면", 미래의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무슨 뜻일까?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같이 무예를 가꾸는 훈련은 공격 기술을 익히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수련 과정에서 사람들은 예절을 배우고, 충동을 누르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전사들의 교육도 다르지 않다. 군사적인 기량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인문적인 소양을 기르고 도덕적인 성품을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순신 장군은 치열한 전장에서도 한시(漢詩)를 쓰며 마음을 다독였다. 나폴레옹은 책을 가득 실은 마차로 전쟁터를 누비며 독서에 빠져들곤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장군은 두꺼운 〈전쟁의 역사〉를 직접 쓸 정도로 역사와 철학에 깊이가 있었다. 이렇듯 동서양의 뛰어난 장군들은 군사기술만큼이나 교양도 수준급이었다. 프로이트는 "본능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지도자들의 공동체"를 꿈꾸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 상황에서 파괴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문명의 수호자답게 마땅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폭력을,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행사할 줄 안다.

폭력을 즐기는 야만인은 전사로 존경받지 못한다. 전사는 문명을 지키는 수호자여야 한다. 군인인 그대가 파괴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문화적 교양을 끊임없이 길러야 하는 이유다. AF

**글쓴이**

철학박사.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등 20여 권의 책을 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중 인문학자이다.

# 공군인의 편지

글 | 상병 이준헌(제16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 꿈 많은 청년의 표정

저번 휴가 때 낡은 앨범에서 군복을 입은 저와 닮은 한 젊은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개구리 무늬 군복도 아닌, 민무늬 녹색 군복에 노란색 작대기 하나 달린 전투모를 쓴 20대 초반의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중고등학생 시절 사진도 봤었고 20대 후반 결혼식 사진도 봤지만, 저와 동갑인 23살에 군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를 처음으로 마주한 느낌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름 없는 얼굴의 아버지 사진은 지금과 달라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아버지 얼굴에서 제 얼굴이 어렴풋이 보여, 평행세계의 저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사진 속 꿈 많은 청년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20년 넘게 같이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웃고 우는 표정 모두 봤지만, 가장이 되고 삼 남매의 아버지가 되어 잃어버린 그 표정은 사진 속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세월이 흘러 꿈 많은 청년의 표정은 주름 아래 묻혔지만, 사진으로라도 남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제가 입대를 하고, 아버지 사진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얹고 살아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메고 있는 군장보다 무거웠던 건 힘듦을 내색하지 않은 아버지 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가 때마다 요즘 군대도 옛날 군대처럼 힘들다고 찡찡거렸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휴가 때 투정 부릴 때마다 웃으시면서 다 이해한다고,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군대 특유의 조직 문화와 사회와의 단절이 너무 힘들고, 적응되지 않았지만, 참고 적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상병을 달고, 입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단 올해가, 어제보단 오늘이 더 익숙하다는 건 저 스스로 나아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에 적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좀 더 어른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전역까지 군 생활의 절반 조금 안되게 남았습니다. 남은 군 생활 동안 더 적응하고, 더 힘을 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새겨진 아버지의 주름 하나하나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AF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moa5819@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 책읽는 공군

글 | 상병 박준성 (공군사관학교 공병대대)

## 『지능의 사생활』 진정한 가치를 찾게 해주는 진화심리학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진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여, 인간 심리의 내생변수를 끌어내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란 감정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피하게 만들어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늘려주었고, 따라서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던 인간은 생존에 실패하고 인류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능의 사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지능'을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합니다.

『지능의 사생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바나 - IQ 상호작용'입니다. 저자는 지능이 '기존에 없던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설명하며, "지능이 낮으면 진화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지능이 높은 이는 그러한 것을 이해함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사바나 - IQ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진화적으로 익숙한 결혼, 연애, 양육, 종교 등에 있어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논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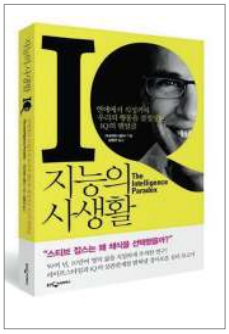
예를 들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믿기지 않는 생각을 가진 지능이 높은 이들"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p.109). 그들은 추상적인 논리 행위를 사회, 대인 관계 영역에 행하기 때문에, 즉 상식의 영역에서 지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므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능이 높은 이들은 통계적으로 자식의 수가 적으면서 종종 잘못된 양육 방식을 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능의 사생활』을 읽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책이 가설에 대한 모범적인 논증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흔히 범하기 쉬운, 가설에 들어맞는 증거를 찾는 오류가 아닌, 가설을 세우고 통계를 통해 가설을 검증해나가는 과정은 과학자로서 모범적인 연구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올 바라야만 '좋은 과학'이다" 등의 사실 판단과 윤리 판단을 비약하는 오류에 대해 저자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한 문장으로 반박합니다(p.273). 과학은 가치판단의 도구가 아니며 오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태도는 과학자라면 반드시 견지해야 할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최악의 부모이다."(p.265)라는 저자의 한 문장은 가정, 연애, 대인 관계, 양육, 종교 등 소중한 우리 주변의 가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높은 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시기심을 가라앉힙니다.

『지능의 사생활』은 학술서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주며, 지능의 가치에 대해 재고하게 하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게 유도합니다. 여러 사람이 두루 읽어야 하는 도서입니다. AF




**『지능의 사생활』**
가나자와 사토시 지음
도서출판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그림 | 강은정 작가

## 깡

최근 대한민국에 〈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깡〉은 가수 비가 2017년 발표한 노래로,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 3년이 지난 2020년 6월이 돼서 갑자기 뮤직비디오 조회수 1,559만 회를 달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무대와 노래가 좋아서 인기를 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팬들은 안무, 의상, 가사가 이상하다며 놀리는 댓글을 달았고, 이러한 댓글들은 '밈 문화'로 자리 잡으며 유행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하루에 한 번은 꼭 〈깡〉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는 '1일1깡'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2000년대에 화려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비는 자신의 곡이 희화화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는 팬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희화화하며 〈깡〉 신드롬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봐도 팬들의 댓글들이 정말 재밌다."며 관심에 감사를 표했고 〈깡〉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비의 이런 태도에 팬들도 비에게 새로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비는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각종 방송과 CF에 출연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티스트라도 항상 대중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성이 강할수록 자신만의 고집에 사로잡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때 대중의 평가를 무시하고 자존심만 세울 경우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는 웃으며 비판을 받아들였고 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고집부리는 것보다 이런 비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자존감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패에 대해 부끄럽지 않아 하는 태도야말로 오히려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악착같이 버티는 오기'를 뜻하는 '깡'. 가수 비가 발휘한 '깡'은 다름 아니라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자세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합리적 비판인데도 상처를 입고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존심은 높지만 자존감은 낮은 것이죠. 잘못했을 때 비판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고 또 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깡'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심자라면 비판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하고, 숙련자도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군인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깡'이 아닐까요?** AF

# 기준의 기준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듣자마자 불안해지는 말이 있다. 바로 "요즘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 말은 반어법이다. 대놓고 '이런 말'을 하겠다는 뜻이다. 심지어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이때 '이런 말'은 시대착오적인 말들이 대부분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표현이거나, '갑질'식 표현 또는 '꼰대'식 표현 등이 해당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면서 하는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시대는 항상 변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옳았던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음에도 '옳지 않은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등, '워라밸' 등 과거보다 중요해진 가치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요즘엔 하면 안 된다.'는 말엔 '옛날엔 해도 됐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 표현은 "이런 말 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냐?"라는 식으로도 쓰이는데, 비꼬려는 의도가 느껴진다. 지금은 너무 삭막하다는 듯이.

흔히 이런 사람들을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 그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착오' 즉 '무지' 때문이다.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다.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면 된다. "당신의 말은 잘못됐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장난스럽게 잘못됐음을 알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세상이 더 좋아지기 위해선 아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 있다. "요즘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라는 말이 그렇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지키지는 않는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정말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바로 웃음이다. 그리고 이 말은 참 교묘하다. 상대방의 비판을 원천차단한다. 불쾌해도 불쾌감을 표시할 수 없다. 이 한 마디로 아무리 불쾌한 말도 '농담'으로 포장되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다. 웃음이 그렇다. 폭력을 숨기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도 참으라고 말없이 강요한다.

이처럼 "요즘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도 하면 안 되는 말이다. 배움의 시작은 '무지의 인정'에서부터다.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시대적 가치를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여도, 화를 내도 듣지 않으면 가르쳐줄 수 없다. 결국 답답한 건 가르치는 사람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군대도 변했다. 우리 공군은 시대적 가치에 맞춰 더 좋은 병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늘어나고 있다. 군대라고 다르지 않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분명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군대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함께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다. 함께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더 좋은 군대는 각 구성원이 만든다. 하지 말아야 한다면 하지 말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말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자. 그것이 더 좋은 군대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세상은 더 좋아진다. AF

#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 공군 SNS 주요콘텐츠 안내

## 에어본

오직 공군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촬영 콘텐츠

## 공대리

공군 대위 LEE가 쉽게 풀어주는 공군 이야기

## 필승공식

한주간의 공군 소식을 요약해주는 60초 뉴스

## 100인의 공군

공군의 다양한 보직을 소개하는 미니다큐멘터리

## 에어리스트

Airmen + speaciallist, 공군의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 /rokafplay

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 /rokairforce

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 /rokaf_offical

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월간『공군』 후기쓰고 상품받자!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공군 홍보물품**
**독자후기 쓰고** 쉽게 받는 방법!

## 참여 방법

### 1. 월간『공군』 E-Book자료관

검색 사이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을 검색하세요.

### 2. 자주 찾는 서비스 독자의견

편집실에 하고싶은 이야기나
잡지를 읽고 느낀 소감, 공군 지면을
통해 전하고싶은 사연을 **매월 10일** 까지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 마음의 소리

**송병승**
서울시 도봉구

〈공군지〉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6.25 한국전쟁 때 우리 공군의 활약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호 기획특집 임도현 비행사의 발자취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경오 여류비행사의 숨은 이야기, 김정렬, 장덕창 등 수많은 공군인들의 투혼이 과거 공군지 구석구석에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공군소식, 참모총장 동정, 부대 소식 등 공군의 살아있는 역사를 편집하는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 공군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은설**
7sn**@hanmail.net

故 공영화 장군의 뜻을 이어 아내이신 이순희 대표가 운영하는 '보라매 나눔의 집'은 소외된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봉사하는 삶을 선택해 15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나누고 봉사하시는 모습이 가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손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의 가치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인 것을 깨우쳤다.'는 말씀에서 나눔과 봉사로 어려움과 고단함을 뒤로한 채,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신 것에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눔의 집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 적힌 '공군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문구가 공군장병에 항상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시는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나눔의 집을 통해 사랑과 행복이 더욱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이영주**
dpme**@hanmail.net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지만 몇 해 전에 우연찮게 공군지를 접한 후 꾸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 코너를 보며 군대가 전투훈련뿐 아니라 봉사활동, 성금, 헌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지역 방역 및 대민지원 기사를 보면서 공군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대한민국인데, 공군지를 통해 감동과 밝은 기운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김건우**
cocohell**@nate.com

어느덧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을 넘어 민방위가 된 공군 639기입니다. 군에 근무하면서 '공감'(그때 당시에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했었던 거 같습니다.)에 제가 있던 소대가 '여자친구 병영체험'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특작군으로 위장해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었던 추억들이 아련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공감' 소식지를 접하게 되니 동기들과... 선후임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즐겁게 보냈던 옛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같습니다. 읽을거리들도 많고 내용이 알차서 읽는 내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있는 공감의 이야기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의견〉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0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0 7

ISSN 2383-5524
09>

발 간 등 록 번 호
38-1600006-000001-06